



# 2016년 세계 보험산업 현황 및 2017~18년 전망<sup>1)</sup>

채원영 연구원

여약

2016년 세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신흥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년대비 5.4% 성장하였으나 저금리 지속, 투자수익률 둔화 등으로 수익성은 하락하였음. 2017~18년 세계 생명보험산업은 미미한 경제성장 회복세와 브렉시트, 미국의 정권 교체 등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둔화가 지속될 전망이다. 2016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수입보험료의 경우 중국 손해보험산업 성장 둔화 및 주요 선진국 경기 둔화로 2.4% 성장하는데 그칠 전망이다. 2017년에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 2018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그간의 성장 둔화에 따른 기저효과와 불확실성 해소 등으로 소폭의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.

- 2016년 세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는 2015년 5.0%보다 0.4%p 상승한 5.4% 성장하였으며 수익성 및 건전성 개선을 위한 보험회사의 사업모델 및 투자포트폴리오 재편이 지속되고 있음.
  - 2016년 선진시장<sup>2)</sup>의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2015년 대비 1.4%p 하락한 2%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, 신흥시장<sup>3)</sup>의 경우, 신흥 아시아를 중심으로 2015년 대비 7.1%p 상승한 20.1% 증가할 전망이다.
  -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수익 둔화 등으로 생명보험산업 ROE(세후)<sup>4)</sup>는 2015년 초 13%에서 2016년 3분기 10%로 하락함.
  -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저축성보험 비중 축소 및 보장성보험 판매 확대, 보유계약 관리 강화, 투자포트폴리오 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음.
    - 미국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전체 수입보험료 중 저축보험료 비중이 2008년 82%에서 2015년 79%로 감소하였음.

1) Swiss Re(2016, 11), “Global Insurance Review 2016 and Outlook 2017/18”를 발췌 및 요약함.  
 2) 북미, 서유럽(터키 제외), 이스라엘, 오세아니아, 일본, 한국, 홍콩, 싱가포르, 대만을 포함함.  
 3) 남미, 중앙유럽, 동유럽, 동남아시아, 중앙아시아, 중동지역(이스라엘 제외), 터키, 아프리카를 포함함.  
 4) Swiss Re가 Aflac, Allianz, Aviva, AXA, China Life, CNP 등 글로벌 생명보험회사 28개를 대상으로 IFRS 또는 local GAAP 기준의 ROE를 집계하여 시장점유율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수치임.

■ 2017~18년 세계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7년 4.8%, 2018년 4.2%에 그칠 전망이다  
비보험사업자의 생명보험시장 진출 확대로 업권 내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.

- 선진시장 수입보험료는 2017년과 2018년 각각 2.1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  - 신흥시장의 경우 경제성장률 둔화로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2016년 14.9%, 2017년 10.9%로 하락할 전망이나 도시화, 중산층 확대가 지속되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할 전망이다.
- 알리바바(Alibaba), 구글(Google) 등 비보험사업자의 생명보험시장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로보어드바이저, 빅데이터, 머신 러닝 등이 보험산업에 도입되면서 산업 내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.

■ 2016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2015년 3.0%보다 0.6%p 하락한 2.4% 성장할 전망이며 저금리 지속으로 수익성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.

- 선진시장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2015년 2.5%보다 0.8%p 하락한 1.7% 성장할 전망이며 신흥시장의 경우 2015년 4.9%보다 0.4%p 상승한 5.3% 증가할 전망이다.
  - 신흥시장의 원수보험료 증가세 확대 원인은 SOC 투자 확대에 따른 일반손해보험 수요 증가임.
- 2016년 주요 8개국<sup>5)</sup> 손해보험산업 ROE(세후)는 투자영업이익이 줄어들면서 2015년 8.0%보다 2.0%p 하락한 6%를 나타낼 전망이다.<sup>6)</sup>

■ 2017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2.2%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이며 2018년에는 3.0%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.

- 선진시장 손해보험산업 원수보험료는 브렉시트, 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2017년 1.3% 늘어나는데 그칠 전망이나, 이러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되는 2018년에는 1.9% 증가할 전망이다.
  - 신흥시장의 경우 2017년 5.7%, 2018년 6.7% 성장하는 등 높은 증가세를 보여 세계 손해보험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다.
- 2017~18년 세계 손해보험산업 ROE(세후)의 경우 선진시장의 보험영업이익 감소, 저금리 지속 등으로 6%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.
  - 미국 상업용 자동차보험 등 주요 선진시장의 보험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Swiss Re는 이러한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. [kiri](#)

5) 호주, 캐나다,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일본, 영국, 미국을 포함함.

6) 보험영업이익의 경우 준비금 환입(Reserve releases) 지속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